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유학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진 한국 지식인의 대표적 인물이다. 사진은 연설하는 그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엄친아'에서 열등생으로 … 미국 유학파들의 민낯

지배받는 지배자

김종영 지음

몰락한 양반 가문의 한 남자는 과거 시험이 폐지돼 출세길이 막히자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영어 습득 능력이 탁월했던 그는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영어 교사가 됐고, 1898년 졸업할 때는 영어 연설을 할 정도였다. 그는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후 그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

지난 15년간 미국 유학 현상과 지식인들을 심층 조사해 온 사회학자 김종영씨는 신간 '지배받는 지배자'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미래에 올 남한 엘리트의 문화적 전범을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유학을 통해 출세의 길을 걷게 됐지만, 자신 또한 지배를 받는 지배자가 됐다는 것이다.

책에 빠져들기 전,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지배받는 지배자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계층이론에서 '지식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지배층은 자본가 계층과 지식인 계층으로 양분된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영역을 지배하는 자본가 계층이 문화적 영역을 지배하는 지식인 계층보다 우위에 있다. 돈이 지식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속칭 '유학파'들의 한계는 명확하다. 새로운 문물과 학식을 배워 온 이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다소 월등한 위치에서 빠르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됐지만 자신들 스스로 더 큰 세상과 자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구조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신라시대 당나라로 유학했던 불교 지식인들, 조선시대 유학과 실학을 배우러 명나라로 건너갔던 사람들,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학했던 지식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한국과 외부 세계 사이의 '중간에 끼인 존재'로서 지식 매개자 역할을 해왔다.

저자는 미국 유학생의 트랜스내셔널(초국가적) 사회적 궤적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지식인은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의 지식 간극의 중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들은 서구의 지배적인 주류 지식인 집단에 비해 그 수와 영향력이 작고, 학문의 아류일 가능성도 크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 지식인들은 크게 귀국하거나 미국에 정착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생존전략은 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 받아들여 한국의 로컬지식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 한국 지식인들은 미국의 대학과 기업에서 미국인들과 같이 지식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궤적은 백인 중심의 미국 전문가 사회의 인종적, 언어적 질서 속에서 제약을 받는다.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미국에 남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형태의 '지배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는 미국대학의 글로벌 헤게모니 탓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모든 헤게모니적 관계는 교육적 관계다'라는 말처럼 한국 대학은 미국대학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지식생산의 양과 질에서 미국은 한국을 압도한다. 이 때문에 미국 유학은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글로벌 격차 속에서 발생한다.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집단에 속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처럼 자신이 수업을 주도할 수 없다. '엄친아'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차별도 존재한다. 외국 학생에게 미국 대학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상당한 부담을 준다. 유학생들은 또 교수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문제, 지도교수의 불명확한 지도, 지도교수의 무관심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인 학생은 사회 네트워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외국인 학생보다 훨씬 낮다. 유학을 가더라도 '지배자'의 범주에 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돌베개·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삐삐·IMF·오렌지족·김광석…
키워드로 들여다본 90년대 풍경

접속 1990

김형민 지음

삐삐, PC통신, 삼풍백화점 붕괴, 김일성 주석 사망, IMF…. 1990년대를 관통했던 키워드들이다.

'특명 아빠의 도전', '긴급출동 SOS' 등을 제작하고 '한겨레 21', '시사 IN' 등에 기고하는 김형민 SBS PD의 '접속 1990-우리가 열광했던 것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들여다본 1990년대 풍경이자 2015년, 오늘을 되짚어본 책이다.

저자에게 1990년대는 '스무살에서 서른살까지 인생 최고의 황금기'이자 '앞길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대학생이자 새까만 훈련병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거대한 사회의 부속품이자 회사의 말단이 되어 월급을 받아 가정을 부양하는 6년차 PD가 된 세월'이다.

책을 구성하는 6개의 챕터 제목만으로도 그 시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신인류의 출현 : 삐삐에서 오렌지족까지', '그때 그 사건 : 휴거 소동에서 마광수까지', '우째 이런 일이 : 전세대란에서 지존파 범죄까지', '아득한 희망의 세월 : 남북 단일팀에서 탈북자의 등장까지', '혹독한 투쟁의 시대 : 분신정국에서 IMF 사태까지', '마지막 희망을 추억하며 : 김종학에서 김광석까지' 등이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유머를 잃지 않는 맛깔스런 글쓰기 덕에 책은 재미있게 읽힌다. 특히 그 시대를 저자와 비슷한 나이로 통과해온 이들은 무릎을 치게 된다.

무엇보다 사형문제, 빈부격차 문제, 통일문제 등 2015년 오늘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촌철살인 지적하는 글들이 때론 매섭고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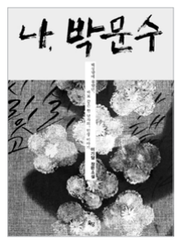
〈한겨레출판·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그림이 된 생각들**=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 전현선이 그림이 그려진 순간의 생각들을 풀어냈다. 여러 전시에서 주목받은 작가의 그림들을 가까이 두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다. 붓을 잡기 전, 화가의 머릿속, 마음속에 떠오른 이야기들은 때로는 단편소설의 한 대목 같고, 때로는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꿈의 한 장면 같고, 동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 40여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열림원·1만3500원〉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섬세하고 날카로운 통찰과 재치 넘치는 글쓰기를 선보여 환영받아온 리베카 솔닛의 신작 산문집.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비롯해 여성의 존재를 침묵시키려는 힘을 고찰한 9편의 산문을 묶었다. 잘난 척하며 가르치기를 일삼는 일부 남성들의 우스꽝스런 일화에서 출발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성별(남녀), 경제(남북), 인종(흑백), 권력(식민-피식민)으로 양분된 세계의 모습을 단숨에 그려낸다. 〈창비·1만4000원〉



▲**샤먼문명**=**'샤먼제국'**에 이어 고대사와 샤머니즘에 관한 기존 학설을 뒤집은 역작. 지식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샤머니즘을 비과학적이고 망령된 미개 종교라고 말한다. 하지는 저자는 우리 민족, 나아가 전 세계인이 수천, 수만년 전부터 샤머니즘을 신봉해왔다고 말하면서 이 사상이야말로 고대사의 실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고도로 발달한 샤머니즘의 천문학 지식으로 샤먼문명은 아주 먼 옛날부터 지동설을 신봉해왔다고 전한다. 〈옥당·1만3000원〉

▲**생존 매뉴얼 365**=2014년 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어린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관한 대처 매뉴얼을 엄선했다. 현실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위기상황 긴급 대처 행동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우리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모아북스·2만5000원〉

▲**비숲**=인도네시아 구눙할라문 국립공원에서 '자바긴팔원숭이의 먹이 찾기 전략'을 연구해 대한민국 최초로 야생 영장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산하 박사의 밀림 모험기를 담은 책. 저자는 몇 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으로 뛰어들어 긴팔원숭이의 행동 생태를 연구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때때로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을 방문, 후배 연구자들을 지원하며 긴팔원숭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언스북스·1만9500원〉

어린이 책

▲**북쪽 나라의 거인 괴물**=마녀와 트롤, 마법사, 어린 소년이 오거에게 붙잡힌 공주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은 어린이 독자들의 예상을 빗나간다. 영미권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에바 이보슨의 모든 장점이 어우러진 흥미롭고 아름다운 판타지다. 〈시공주니어·9000원〉

▲**그 많던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울산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부터 오늘날의 고래 보호 운동에 이르기까지, 고래의 종류와 생태, 진화 과정 등 고래의 모든 것을 담은 고래 안내서이자 물속 생태계 보고서다. 멸종 위기의 고래를 둘러싼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 삶과 지구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풀과바람·1만1000원〉

▲**내가 돌봐 드릴래요 우리 할아버지**=세대 간의 투명한 공감을 상큼하고 유쾌하게 담아낸 훈훈한 그림책.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좋은 보모로서 시간을 사용하는 비법을 상큼하고 발랄하게 풀어 놓았다. 가만히 있는 비법, 멋지게 작별인사 하는 방법 등 가족간의 결합과 따뜻한 돌봄을 귀엽고 깜찍하게 그려냈다. 〈씨드북·1만1000원〉

▲**도올만화논어 5**=도올 김용옥 선생의 '논어한글역주'를 저본으로 하여 만화작가 보현이 그린 고전 만화. '논어' 499장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쉽게 풀어낸 만화 논어 완간본인 5권이 완성됐다. 한문의 원문이 한글발음과 함께 모두 실려 있고, 낱낱이 번역됐다. 〈통나무·1만2900원〉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조정가)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서구 벽진동 대지 230㎡ 매 5억
- 서구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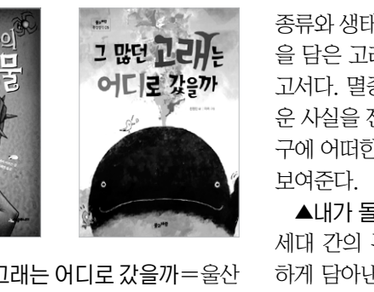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 평당 15만원
▶지역 :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면적 :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 주택4동+켐핑카
▶매가 :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 4100평방미터 (계획관리)
▶매가 : 1억3천만원
▶주소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 4509평방미터
▶매가 :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고창에 집짓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 가로 85cm×세로 55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30%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 협(김희진)175359-56-130180